

마음이 통하는  
VOL.11

# 길



olleh  
가족캠프

한국  
노총가입

건강검진단가상향

구조조정저지

산업재해자보상기준개선

## 현장순회강화

자녀인터넷교육확대 무급휴일근무철폐

경조사비지급기준단일화

지역단별프로모션금지 업무용차량면책금개선

인사보수제도협의회요구

리튬이온배터리대체 확대 특별기동팀KPI개선

노후공용PC대체 이륜차보험개선 원거리근무자여비지급

## 주파수할당부당경매철회촉구대회

퇴직연금중도인출시행 전사업무용PC렌탈전환

징계자대사면

조합원현장간담회

글로벌어학연수

야간대기관련협의

기획특집  
키워드로 되돌아보는  
노동계 이슈

현장 24시  
강북네트워크운용단 이규하 조합원  
충청네트워크운용단 류동렬 조합원  
길따라 멧따라  
한 잔의 술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멋

마음이 통하는  
VOL.11

# 길



# 내일은 언제나 희망입니다

시간은 자기 나이만큼의 속도로 흐른다는 농담이 있습니다.  
20대는 20km/h, 40대는 40km/h...  
나이가 들수록 시간의 흐름이 빠르게 느껴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한 실험에서 사실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10대부터 60대까지, 세대별로 모인 사람들에게 속으로 60초를  
헤아리게 한 후 1분이 됐다고 느끼는 시점에서 손을 들게 했는데요,  
60대가 가장 빨리, 10대로 갈수록 늦게 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면 나이만큼의 속도로 시간이 흐른다는 말이  
영 틀린 말은 아닌 모양입니다.  
해가 다르게 손살같이 흘러가는 시간.  
주춤하는 사이 어느새 연말입니다.

올해는 어떤 한 해였나요?  
연초에 기원했던 소망이 이루어졌나요?  
쉽게 이루어질 소망이라면 애초 소망이라 이름 붙이지 않았을  
겁니다. 이루지는 못해도 소망에 한 발짝 다가갔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에게는 다시 희망찬 새해가 다가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한 자신에게, 가족과 동료에게  
감사와 응원을 보내는 뜻 깊은 연말 되시기를 바랍니다.



# Contents

발행인 | KT노동조합 위원장 정운모 편집인 | KT노동조합 정책실장 차완규  
발행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번지 KT노동조합 031-727-2835  
발행일 | 2013년 12월 12일(격월간) 제작 및 디자인 | KT문화재단 02-3414-2053  
인쇄 | 애드그린(주) 02-498-6254



04  
KTTU NEWS



08  
KTTU 발자취  
11대 집행부 주요 발자취

10  
KTTU 클로즈업  
차기 KT CEO는 누가  
될 것인가?



11 2013  
vol.11  
12



12  
기획특집  
키워드로 되돌아보는  
노동계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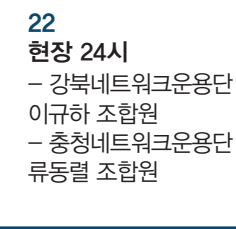
16  
KTTU 클릭 01  
공정무역과 공정여행  
으로 더불어 사는 삶



18  
KTTU 클릭 02  
해아림  
KT심리상담센터

20  
노동계 이슈  
진화하고 있는 산재근로  
자 재활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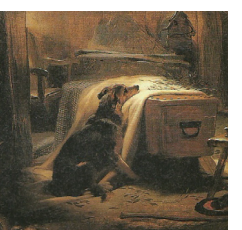
22  
현장 24시  
- 강북네트워크운용단  
이규하 조합원  
- 충청네트워크운용단  
류동렬 조합원



26  
KTTU 리포트  
kt, 아프리카  
통신시장 진출



표지  
2013년 KT노동조합의  
주요 중점 사항을 표현



28  
길따라 멧따라  
한 잔의 술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멧

32  
그림과 대화하기



# KTTU news



## 지방본부별 조합간부 역량강화교육 실시



KT노동조합은 조합간부들의 전문성을 함양하고 단결력을 높이기 위해 중앙사무집행위원을 지방본부에 파견, 2013년 지방본부별 조합간부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다.

먼저 강원지방본부는 지난 10월 1일(화) ~ 2일(수) 1박 2일간 대관령수련관에서 지방본부위원장 및 상집간부, 지부장, 지부부서장, 선관위 대표 등이 모인 가운데, 조합간부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다.

이어 충남과 충북지방본부는 15일(화) ~ 16일(수)과 17일(목) ~ 18일(금), 도고수련관에서 각각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 중앙사무집행위원은 조합의 활동방향, 역사, KT복지제도 및 상호서비스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물론, 다양한 현안사항에 관한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지방 조합간부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 냈다.

## 정윤모 위원장, KT노동조합 동우회 추계총회 참석



정윤모 위원장은 10월 29일(화)부터 31일(목)까지 경주수련관에서 개최 중인 'KT노동조합 동우회 2013년도 추계총회'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강단에 선 정 위원장은 총회를 축하하며 "노동운동이 조합원들의 신뢰뿐 아니라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건전한 사회 발전에 기여하려면, 경험과 연륜 있으신 선배님들로부터 더 많은 조언과 충언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KT노동조합은 각종 정책과 비전을 선배님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구할 것"이라 밝혔다.

이어 "변화하고 소통하는 KT노동조합 11대 집행부는 그동안 선배

님들이 쌓아온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지난 2년여 동안 새로운 노동운동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 왔다"며, "선배님들께서는 계속해서 KT노동조합과 KT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충고와 따뜻한 시선으로 후배들을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고 인사했다.

한편 이날, KT노동조합 동우회(최상용 회장) 회원 및 그 가족 참가자 일동(320명)은 KT상품을 적극 판매할 것을 결의하였다.

## KT노동조합, CEO 선임 감시위원회 운영



KT노동조합은 현 KT상황에 가장 적합한 CEO 선임을 위해 CEO 선임 감시위원회를 설치하여 회사의 명운이 걸린 CEO 선임과정을 2만 5천 조합원 동지들과 함께 철저히 감시해 나갈 것이다.

- 운영기간 : KT CEO 선임 때까지
- 위원회 구성
  - 대표위원 : 황성관 사무총장
  - 위원 : 한호섭 사업지원실장, 차원규 정책실장, 최장복 조직실장, 김신 본사지방본부위원장, 김석희 강북지방본부위원장
- 활동목적 : KT CEO 후보검증 및 의견제시

## 400여 조합간부, 한국노총 노동자대회 참가



KT노동조합은 지난 16일(토) 오후 1시부터 서울 시청광장에서 개최된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했다. 이번 대회는 '노동기본권 쟁취! 노동법 개악 저지! 비정규직 차별 철폐! 대선공약 이행!'을 기조로 열렸으며, KT노동조합 정윤모 위원장을 비롯한 중앙사무집행위원과 12개 지방본부 조합간부 400여 명 및 KT그룹사 등 한국노총 조합원 3만명이 운집했다.

**노조법 개정, 정리해고남용 규제 등 5대 입법과제 쟁취 위해 투쟁!** 한국노총은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1년이 되어가지만, 노동자와 서민의 생활은 여전히 위태롭다"며 "대선공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이것이 바로 신뢰정치의 첫걸음"이라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현행 노조법으로 현장 노동운동이 크

게 위축되고 있다는 점"이라 지적하며, "노사관계를 갈등과 대립으로 몰아가는 노조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여야는 산업현장 민주주의 뿌리인 노동조합을 위태롭게 하고 있는 현행 노조법에 대한 개정법안을 조속히 심사하고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한국노총 100만 노동자의 단결된 힘으로 ▲노조법 개정과 노동기본권 확대 ▲실노동시간 단축 ▲정리해고 남용 규제 ▲비정규직 차별철폐 ▲최저임금 현실화 등 5대 노동입법과제를 반드시 쟁취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결의문을 통해 "한국사회의 강력한 대중조직인 한국노총은 노동현장의 분노와 노동이 존중받는 평등복지사회를 향한 전 국민의 열망을 담아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 선언했다.

## 17일 손기정 마라톤대회 4천 KT그룹 가족 참석

한편, 정윤모 위원장을 비롯한 중앙사무집행위원들은 이튿날 17일(일)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손기정 평화마라톤대회에도 참가했다. 특히 정 위원장은 갑작스러운 추위에도 불구하고 대회에 참가한 KT그룹 4천 임직원 및 가족들에게 "KT그룹 5만 가족의 주인의식과 저력을 통해 현재의 혼란을 빠르게 수습하고 극복하여,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KT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자"고 격려했다.

## UCC 3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기업 간 노사협의체 UCC는 11월 20일(수) 오전 11시 분당에서 제3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KT 노사를 비롯한 각 회원사 노사담당자 등 총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남동발전, 한국농어촌공사 신규 회사사 상건례 ▲기금관리 현황 및 2014년도 사업계획 보고 ▲사회적 기업 설립 등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기금집행 심의·의결 등으로 진행됐다.

## IT사무서비스연맹 대표자회의 열려

한국노총 IT사무서비스노동조합연맹 공동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윤모 위원장은 11월 20일(수) 오후 3시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IT사무서비스연맹 11월 대표자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대표자 회의에는 정윤모·최두환 연맹 위원장을 비롯한 KT그룹노동조합 등 회원조합 대표 총 23명이 참석했으며, 주요 현안을 결정하고 논의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먼저, 지난 16일(토)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IT사무서비스연맹 조합원이 1천명 이상 참석한 것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이어 13일부터 4박 5일 일정으로 몽골 운송통신석유노조 소속 ICT 부문 노조대표단이 방문해 연맹과 '국제교류협정서'를 체결한 것에 대한 설명이 뒤따랐다.

또한, 현 '부위원장단 회의'를 규약에 맞춰 '집행위원회'로 정정키로 했으며, '연맹 ICT 회관건립 추진위원회 구성'을 심의·의결했다.

정윤모 위원장은 "추위에도 불구하고 전국 노동자대회를 잘 치르기 위해 힘써 주신 각 단사 조합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격려하며, "내년도 사업을 꼼꼼히 준비해 ICT 노동자들의 든든한 울타리로 거듭나자"고 강조했다.

## 주말, 전국 휴일복무 불시점검 실시



KT노동조합은 중앙사무집행위원들을 11월 23일(토)~24일(일) 주말 이틀간 각 지방본부에 파견해 휴일복무 불시점검을 실시했다.

이는 지난해 집중 실시한 '불필요한 무급 휴일근무 근절 정책'이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화됐다고 판단했으나, 연말을 앞두고 재차 강조하기 위해 강행한 것이다.

## 정윤모 위원장 지난해 취임 직후 "무급휴일근무 근절" 선언

KT노동조합은 정윤모 위원장 공약사항인 불필요한 무급휴일근무 근절을 위해 2012년 2월부터 주말마다 현장 불시점검을 시행했었다. 이는 OECD 국가 중 최장근로시간 오명을 가진 우리나라에서 특히 ICT노동자들의 근무환경이 상당부분 열악하다는 판단에서 출발했다.

노동조합은 불시점검 중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는 해당 단장 징계 등 강도 높은 후속조치를 요구, 재발방지를 위해 힘써왔다. 아울러 지난해 4월, '무급휴일근무 근절 및 제도적 정착을 위한 실태조사' 중 일부기관에서 대체휴일 운용사례를 적발, '대체휴일제 부여 금지'에 관한 노사합의 사항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이어 올해 2월에는 무급휴일근무를 철저히 근절하고자 비근무일



(연차휴가일, 휴일근무 미승인 상태의 휴일/휴무일) 일부시스템 접속제한(대상 시스템: ICIS, NeOSS)을 요구했고, 7월부터는 종합문서시스템 접속제한도 이끌어 냈다.

노동조합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을 불시점검하여 불필요한 무급휴일근무를 뿌리뽑기 위한 현장정책을 강행할 방침이다.

### 중앙상집, 전국 현장설명회 개최



KT노동조합은 11월 26일(화)부터 29일(금)까지 4일 동안 중앙상무집행위원들을 12개 지방본부로 파견해, 소속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KT 주요현안 공유 ▲노동조합 11대 집행부 활동 내역 및 향후 활동방향 보고 ▲공급증 해소를 위한 조합원 간담회를 통해 현장을 빠르게 안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와 관련 정윤모 위원장은 “간담회 시 조합원 연령대와 성별, 업무별로 고른 세분화를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중앙상집 14인은 나흘간 전국 SMB 센터, 사업지원센터, 지사가 같이 있는 건물 위주로 방문해 지방 조직

국장 및 지부장의 협조를 받아 조합원 간담회를 열고, 건의사항 및 불만사항을 직접 수렴했다.

파견된 조합간부들은 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방 조직국장, 지부장 등의 협조를 받아 하루에도 수 차례 조합원 간담회를 강행했다.

현장과 플라자는 아침출동 전과 일과시간 종료 후 간담회를 실시하며, 내근 및 영업의 경우 업무에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부사무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다.

관련해서 정윤모 위원장은 “CEO 선임문제와 근거 없이 떠도는 각종 루머로 인해 현장 분위기가 흔들리면 KT의 미래는 없다”며, “KT의 주인이 조합원임을 주지하고 현재 상황을 가감 없이 공유하여 어수선한 연말 분위기를 빠르게 안정화할 것”을 주문했다.

노동조합 중앙본부는 중앙상집 현장설명회 내용을 매일 보고받아 향후 활동방향에 반영하고, 문제점은 적극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현장간담회 결과 논의... 2014년 사업방향 기초삼을 것



KT노동조합은 12월 2일(월) 오후 2시 중앙상무집행위원 미팅을 소집하고, 지난 11월 26일(화)부터 29일(금)까지 나흘간 실시한 전국 현장 조합원 간담회 결과를 논의했다. 지난 주 중앙상무집행위원들은 전국 150여개 지부를 순회하며

간담회를 개최했고, 조합원들과 현장의 문제점 및 공급증, 조합에 바라는 점 등을 가감 없이 소통했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간담회 결과를 인사, 보수, 복지, 영업, 네트/기술, 회사/경영, 홍보강화/조합활동 등으로 세분화해 TFT를 구성해 개선책 마련에 나선다.

#### 2014년 현장활동 확대 및 소통채널 강화 필요

이날 간담회에 참석했던 조합간부들은 “회사가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에서 CEO 문제까지 겹쳐 현장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고 우려하며, “예산부족, 인력난에 복잡한 업무시스템으로 인한 내부경쟁이 팽배해 직장 분위기가 와해되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공감했다.

s또 “노동조합 중앙본부가 직접 나서 무급휴일근무가 근절될 것처럼, 집행부가 직접 나서 현장의 고충에 귀 기울여 줄 것을 호소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기밀 곳이 없는 상황에서 조합원들은 조합이 더 큰 목소리와 강력한 울타리 기능으로 무장하길 원한다”며, “2014년 현장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소통의 채널을 다각화해 조합원들의 상처치유를 위한 강력한 쇄신이 필요하다”는 데 적극적으로 동의했다.

정윤모 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조합간부들의 느낀 점이 상당할 것”이라며, 지방본부별로 취합한 내용을 세심하게 공유하고 해결점을 찾아 내년 사업방향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14년 상반기 조합원 및 가족 의료행사 안내



KT노동조합은 겨울방학 시즌을 맞이하여 조합원(가족 포함)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행사를 시행한다.

- 접수기간 : 2013년 12월 9일(월) ~ 12년 27일(금)
- 치료기간 : 2013년 12월 30일(월) ~ 2014년 2월 28일(금)

- 진료과목 : 안과, 치과
- 진료대상 : KT직원(계약직 포함) 및 가족

- 접수방법 : 아래 첨부한 신청서양식을 작성 후 이메일 (kt2879@naver.com)로 신청

#### ■ 행사과목 및 장소

#### ■ 행사 권장사항 및 유의사항

- 치과 : 임플란트, 교정, 보철 전문병원
  - 서울명동점, 서울강남점, 서울강서점, 분당점, 부평점, 구로점, 일산점, 미아점, 남부터미널점, 인천주안점
- 안과 : 시력교정수술 전문병원 (서울 명동점, 부산점)

※ 비 조합원도 가능하오니 관심있는 직원은 꼭 문의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실 「문서/정책」을 참고 하십시오.

### 2013년 4/4분기 명예퇴직 시행공고



인사규정 제26조에 의거 2013년 4/4분기 명예퇴직을 시행한다.

- 적용대상 : 실 근속기간 20년 이상이며 정년까지 잔여기간이 1년 이상 남은자 (2013.12.31 기준)
- 접수기간 : 2013년 12월 16일(월) ~ 2013년 12월 27일(금)
- 심의기간 : 2013년 12월 30일(월) ~ 2013년 12월 31일(화)
- 퇴직발령 : 2014년 01월 01일 자
- 시행절차
  - 소속기관 인사담당자 면담
  - 명예퇴직 신청서류 작성 및 ERP 시스템 등록
  - 소속 기관장 면담 및 추천(심사 의견서 첨부 필)
  - 인사위원회 심의
  - 명예퇴직 발령(인사위원회 심의결과 ERP 등록)
- 기타사항 : 명예퇴직금 지급수준은 보수규정 제39조에 의함

### 산하조직대표자회의 열려...

#### 노동조합 활성화 세부실행 방향 발표

KT노동조합은 12월 11일(수) 오후 3시 '2013년도 제8차 산하조직 대표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CEO 추천위 진행상황 공유 ▲내년 한국노총 선거 관련 보고 ▲내년 1월 6일 노동조합 창립 32주년 기념식 준비상황 공유 ▲현장간담회 결과 논의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정윤모 위원장은 “11월 26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 현장간담회 결과를 보며 많은



생각에 잠겼다”며 “무엇보다 집행부의 해결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 선언하고, ‘노동조합 활성화 세부실행 방향’을 발표했다.

#### “소통없는 조직은 죽은 조직, 조합원 고충처리에 발 벗고 나서라!”

정 위원장은 “현재, 간담회 결과 중 건의사항을 분야별로 400여 개로 압축해 전담 TFT를 통해 해결에 나선 상태”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소통없는 조직은 죽은 조직”이라 지적하며, “조합원들을 위한 효율적인 홍보와 소통강화를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 지부가 좀 더 유기적이고 적극적으로 현장활동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2014년 △조합원 간담회 수시 개최 △지부 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 △조직 전달체계 및 게시판 강화 △미스터리 쇼핑제도 도입 △매월 우수지부 표창 등의 시행을 알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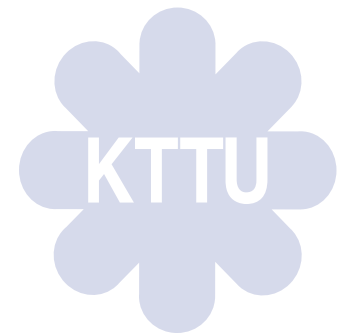
#### 2013년도 제2차 중앙위원회 개최

한편, 노동조합은 12월 11일(수) 오후 2시 '2013년도 제2차 중앙위원회'를 개최해 목적사항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는 노동조합 규약 제4장 제32조[소집], 제33조[의결사항]에 의거, 전체 중앙위원 24명 전원 참석으로 성원 된 가운데 ‘예산항목 전용 승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열렸다.

구체적으로 지난 7~8월 주파수경매 공정성 촉구 투쟁 당시, 긴박한 상황에 따라 각종 집회와 선도투쟁, 언론광고 등에 우선 집행한 예산을 사후 전용하기 위한 것이다.

당시 조합은 회계규정 제3장 [회계처리], 제21조[항목전용승인] 및 중앙상무집행위원회(2013.07.01)를 열어 관련 예산의 긴급집행을 추진했다.





# { KT노동조합 11대 집행부 } 주요 발자취

쉽 없이 달려온 2013년의 마무리를 앞둔 연말이다. 많은 사람이 그렇듯, 11대 집행부 역시 한 해를 잘 보냈는가, 돌아오는 갑오년 새해의 사업은 어떻게 하면 더 알차게 진행할 수 있을까 이 같은 질문들과 함께 12월을 맞이한다. 31년 도전과 쟁취의 모든 중심에는 바로 조합원들이 있었고, 노동조합을 지키고 발전시켜 온 원동력도 조합원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KT노동조합(위원장 : 정운모) 11대 집행부가 출범한지도 벌써 2년. 조합원의 고용과 현장안정을 위해 최선의 각오로 앞만 보고 뛰었지만, 미처 세세히 챙기지 못한 사업들과 애초 목표에 미치지 못한 아쉬움 역시 남아있다. 이제 새로운 결심으로 다시 만들어가야 할 2014년 갑오년을 앞두고, 11대 집행부는 더 큰 결의와 희망을 품고 전진할 것이다. 조합원으로부터 신뢰받는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 직접 발로 뚫은 지난 2년간 KT노동조합 11대 집행부의 발자취를 정리해본다.



### 고용안정 분야

- 현장순회 : 정운모 위원장 및 중앙상무집행위원들은 12개 지방본부와 소속지부를 수시로 순회하며 조직안정에 주력해 왔다. 또한 현장순회 결과를 토대로 회사에 지속적인 문제 개선을 요구, 조합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했다.
- 구조조정 저지 : 11대 집행부는 유선매출 하락으로 인한 구조조정 요구에 단호히 대처, 2만 5천 조합원의 고용을 사수했다.
- 한국노총 가입 : 상급단체 가입으로 사회적 책임 확대, 노동조합과 KT 사수 및 고용안정 강화, 방송통신 미디어 규제에 맞서 대정부 교섭력 확충 등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하여 13개 그룹노조가 한국노총에 동반 가입했다.



### 복지분야

- 직원자녀 글로벌 어학연수 : 직원 사기 진작 및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글로벌 어학연수 추진. 높은 호응 덕에 2012년에는 40여명이었던 참가자를 2013년에는 60명으로 확대했다. 조합원에게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지부장 이상 조합간부 자녀 및 부장과 센터장 이상 자녀는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였다.
- 인사·보수제도개선 협의회 요구 및 합의 : 인사·보수제도개선 협의회 요구하여 멀티페이밴드 도입, 인사평가제도 개선, Sales직 신설 및 고객센터서비스직 이원화, TM제도 개선, 호칭부여 기준 재정립, 경영성과 보상제도 개선, 수당 개선, 복무 및



복지제도 개선 등을 합의했다. 이는 승진제도와 인사평가제도, 호칭제 및 TM제도 개선 등 11대 집행부 공약사항인 상하반기 휴직제 도입 등 조합요구가 상당부분 반영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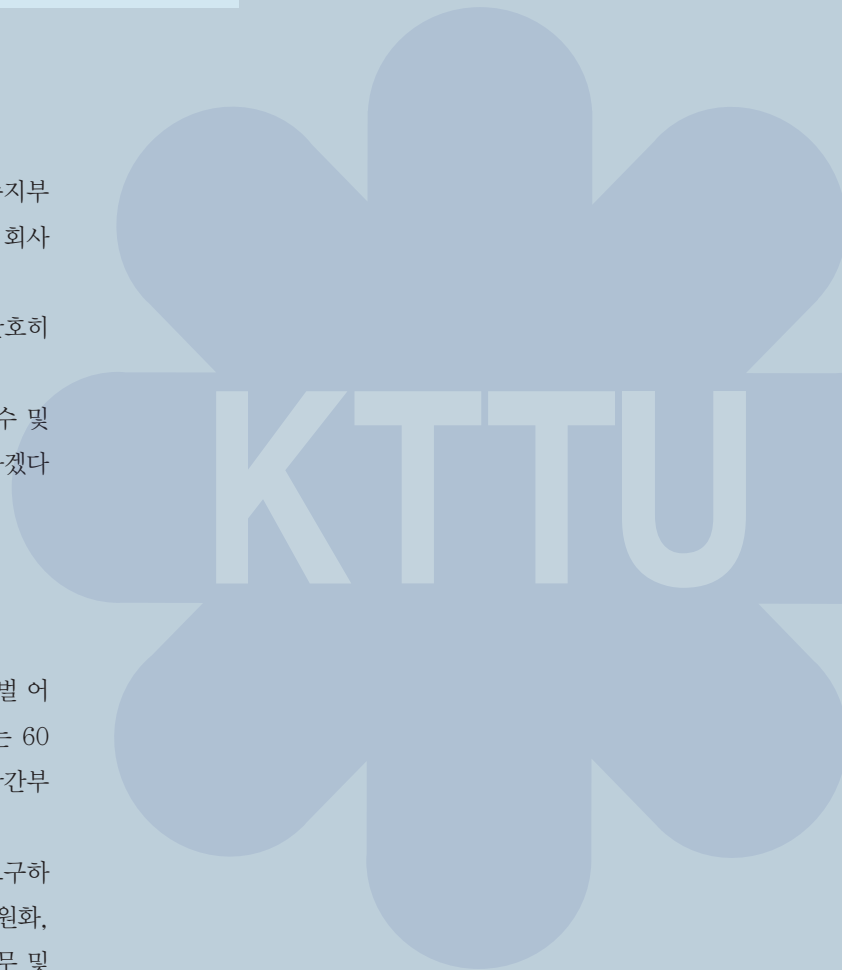
이밖에 자녀인터넷교육 확대, 50세 이상 건강검진 단가 상향 및 검진폭 대폭 확대, 퇴직연금 중도인출 시행, 경조사비 지급기준 단일화, 산업재해자 보상기준 개선 등의 복지 개선을 이뤄냈다.

### 정책분야

- 무급휴일 근무 철폐 및 지역단별 프로모션 금지 : 11대 집행부는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시행해 온 강도 높은 중앙상무집행위원 현장불시점검을 병행하면서 비효율적인 무급휴일근무와 지역단별 프로모션 근절을 위해 발 벗고 뛰었다. 이에 비근무일(연차휴가일, 휴일근무 미승인 상태의 휴일/휴무일) 일부시스템 접속제한을 요구하여 7월부터 종합문서시스템 접속도 제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 립스폰 대개체 확대 : 노동조합은 현장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IT폰 대개체 기준을 회사측과 재협의하여 대상자, 기종, 주기, 수량을 확대하였다. 이에 립스폰 삼성갤럭시노트 1,700대와 블루투스 및 차량용거치대 2,700대의 현장지급을 결정했다.
- 업무용차량면책금 개선 : 업무용 차량 사고 시 면책금 지원 확대하여, 무면허 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 외에는 회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개선되었다.(기존에는 운전자 부담이 20만원)
- 전사업무용 PC 렌탈 전환 : 노동조합의 지속적인 요구로 전사 임직원 업무용 PC 2만 9천 5백대를 렌탈 전환하였다. 고장 및 노후가 심해 OS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한데 따른 조합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환할 것을 회사에 적극 요구, 이 같이 결정됐다.

노동조합은 이 외에 특별기동팀 팀KPI 개선, 이륜차 보험 개선, 원거리 근무자 여비지급 등의 정책개선을 일궈냈다.

한 해의 마무리에 선 지금, KT노동조합 11대 집행부는 다가오는 2014년엔 더욱 폭넓은 현안문제와 조합원 삶의 질을 위한 고용과 복지실현을 위해 다시 전력을 다해 펼 예정이다. 조합원들의 열망과 저력을 노동조합 창립 정신으로 새롭게 되새기고, 시련을 열망으로 채우던 단결의 힘을 놓지 않는 한, KT노동조합과 KT는 역경 속에서도 쉽사리 주저 앉지 않는 저력으로 100년 미래를 채워 나갈 것이다.





# 차기 KT CEO는 누가 될 것인가?

관료계, 경제계 등  
치열한 경쟁 속  
하마평 무성



## 안으로는 실적부진, 밖으로는 CEO리스크에 민영화 이후 최대 위기

KT가 지난 달 26일부터 시작한 CEO 공모를 마무리한 결과, 헤드헌팅 업체를 비롯한 전문기관의 추천까지 합쳐 총 40여 명이상이 응모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수 전 정보통신부 차관과 형태근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등 관료출신, 최두환 전 사장, 이상훈 전 사장 등 KT 내부출신, 그리고 이기태 전 부회장 등 삼성출신 등이 공모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벌써부터 인맥을 동원한 각축전에 후보자간 물밑 경쟁도 치열해 과열 양상을 보이는 모양새다.

뿐만 아니라 남중수 사장 시절 KT노동조합 위원장이었던 지재식 전 노조위원장과 이석채 회장 선임 당시 노조위원장 선거에 나갔다가 낙마한 조태욱씨도 차기 CEO 공모전에 가세했다. CEO추천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첫 회의에서 후보자 확정 일정을 '연내'라고 못박은 바 있다. 서류 검토와 개별 면접을 거쳐야 하는 만큼 후보 확정까지 시간이 넉넉지 않은 형편이다. 이에 따라 KT CEO 추천위원회는 오는 14일 2차 회의를 갖고 차기 KT CEO 적임자를 최대한 줄여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추천위가 위원장을 제외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후보자를 정하면 이사회는 1월 초 주주총회를 열어 정식 CEO로 선정할 예정이다. 일단 유력하게 거론되는 후보들과는 달리 선임 가능성이 지극히 낮긴 하지만 가뜰이나 KT 안팎의 위기가 경영 리스크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마당에, 주인 없는 회사의 약점을 이용한 KT 흔들기의 주역들이 혼돈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 세간의 중평이다. 특히 KT 해고자인 조태욱씨는 'KT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응모했으며 이를 위한 후보자 공개토론회까지 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상은 상사를 폭행하는 심각한 물의를 일으켜 해고된 바 있고 소송과 고발을 남발하고도 '정당한 해고'로 대법원 판결까지 패소한바 있는 요주의 인물이다.

문제는 조씨의 행위가 조합원의 복지후생 향상이나 회사를 위한 건설적인 발전을 위한 노력보다는 반KT 이미지를 통해 주목을 받고 정치적인 입지를 얻으려 한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에서 KT CEO 공모의 중량감을 떨어트린다는 것이다. 워낙 매스컴뿐 아니라 정/재계의 이목이 집중된 자리라 부담을 느낀 KT로서는 특별한 조치 없이 공모를 단행할 수 밖에 없었던 탓에, 안팎의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너나 없이 모여든 모양새라 그만큼 논란을 만들어내며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이 밖에도 일부에서는 이기태 전 삼성전자 부회장과 황창규 전



사장, 흥원표 삼성전자 사장 등 삼성출신을 거론하고 있어 CEO 선임을 둘러싼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후보로 거론된 삼성전자 출신 인사의 경우, 휴대폰을 만드는 제조회사 출신 인사가 통신업체인 KT회장까지 맡으면 시장질서가 외곡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어 반대 목소리가 거세다.

## KT 조직의 힘을 회복하는 인물이 돼야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외부에서 거는 신입 KT CEO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는 것이다. 새로 부임하게 될 CEO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 통신 사업의 위기 돌파 등 풀어야 할 과제와 절차가 산더미처럼 쌓여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CEO 추천위원회는 새 CEO 선임 절차를 투명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진행해야 한다. 정치권의 개입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KT를 살릴 수 있는 인물인가에 초점을 맞춰 후보자를 선정해야 하는 것이다.

3만 KT임직원이 바라는 CEO는 무엇보다 탄탄했던 예전 KT 조직의 힘을 복원할 수 있는 인물이다. 그 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체되던 고질적인 CEO 리스크는 회사의 경쟁력을 갇아먹을 수밖에 없다. 때마다 CEO가 바뀌니 경영의 안정성과 연속성이 흔들린 탓이다. 때문에 더욱 조직력이 약화되는 악순환으로 가뜰이나 사기가 떨어진 임직원의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하는 것이다. 잠시 KT에 머물렀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KT에 애정을 가지고 지속 성장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 할 수 있는 열정과 능력을 겸비하여야 하는 것이다. 굵이 끊자면 외풍에 취약한 인사보다 KT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고 전문성과 리더십을 검증 받은 내부 인물이 적격이라 할 수 있겠다.

둘째, KT의 역사와 전통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경영경험이 풍부한 IT전문가가 선임되어야 하며, KT 내부사정에 전혀 문외한인 낙하산 인사는 철저히 배제되어야 한다. 전반적으로 통신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ICT 선두 기업으로서 입지를 다져갈 수 있다. 또한 경영 경험이 풍부해야 대규모 조직관리는 물론 강력한 경영혁신 의지를 다질 수 있다. 국민주 공모를 통해 민영화 된 민간사업자지만, ICT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KT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국민이 원하는 정보통신사업자로서 역할과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민간 사업자 역량을 고루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글로벌 비즈니스 능력과 미래지향적 비전이다.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내수 한계에 직면한 통신사가 세계시장으로 뻗어나가야만 성장을 지속할 수 있고, 글로벌 진출 등을 꾸준히 추진해야 미래 KT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KT의 진정한 주인은 수시로 바뀌는 경영진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3만 2천 종사원 들이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CEO의 자질은 KT 종사원과 노동조합을 이해하고 경영의 동반자로 인정하는 자세를 갖추었느냐가 될 것이다. 최고경영자 한 사람의 마인드가 많은 것을 변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흥망을 좌우하기도 한다. 전 종사원이 똘똘 뭉쳐 이번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KT가 통신업계 만형으로서 다시 한번 높이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지, 또 정치계의 압박을 받지 않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CEO를 선정하게 될지, 3만 KT 종사원의 매서운 눈이 CEO 추천위원회의 결정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다.



# 키워드로 되돌아 보는 2013 노동계 이슈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올해 노동계도 새로운 이슈가 떠올랐다.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정년연장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노동환경에 적지 않은 변화를 몰고 왔으며, 비정규직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은 가운데 박근혜 정부의 성의 있는 대책을 기다리고 있는 분위기다. 올해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근로시간단축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던 새누리당은 결국 입법 상정에 소극적인 모습으로 일관하며 노동계를 실망에 빠트렸고, 통상임금의 정위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개 변론을 개최하는 등 초유의 법정공방이 이어졌다.

## 01 정년연장

## 02 통상임금

## 03 비정규직

## 04 근로시간 단축



### 정년연장법 통과, 세대갈등은 없다

노동자들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정년연장법이 올해 초 국회에서 통과됐다. 2016년부터 효력을 발휘하는 정년연장법은 인구고령화 시대의 해법으로 노동자들의 법정 정년을 연장시켜 고용안정을 꾀할 수 있다는 면에서 의미가 크다. 정년이 연장됨에 따라 노동환경도 적지 않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근속기간에 따라 임금이 증가하는 연공급 구조를 지니고 있는 기존의 임금 제도를 정년연장 이후, 생산성과 일의 가치를 반영해 책정하는 방향으로 체계를 개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의 효율에 따라 임금을 산출하는 것은 일면 타당한 면이 있다. 하지만 기업의 입장이 일방적으로 반영됨으로써 젊은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완성도 높은 개선책이 요구된다.

정년연장이 입법화되면서 일부에선 세대 간 갈등을 우려하기도 한다. 정년 혜택을 받는 일자리와 청년들의 구직이 충돌하면서 사회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개별 기업 하나하나가 아닌 사회 전체로 봤을 때 청년층과 장년층의 직종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충돌할 확률이 거의 없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갈등의 우려는 줄어들고 있다. 더욱이 임금피크제 같은 유연한 임금체계를 통해 정년연장 수혜자들과 젊은 노동자들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모델이 제시되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오히려 확대시킨 일부 대기업의 고용창출 사례가 보고되면서 정년연장법 시행으로 미치게 될 순기능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우려할 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정년연장법이 시행되는 2016년 이전에 정년이 도래하는 55~58세 노동자들이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노동계에서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경과규정을 마련해 입법화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 근로시간단축 결국 흐지부지

정부와 새누리당이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통과시키기로 해 한순간 이목이 쏠린 적이 있다. 애초에 새누리당은 정기국회 회기 안에 근로시간단축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원칙을 세우며 민주당과 적극적인 협의를 이루어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근로시간단축법을 연내에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며, 고용노동부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변명을 들며 법안 처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이 법안처리를 미루고 있는 것은 '휴일근로가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된다' 보는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대고법과 서울고법은 올해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중첩해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판결이 향후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면 '통상임금+연장수당+휴일수당'을 청구하는 노동자들의 엄청난 줄소송으로 이어질 것이 명약관화한데다 통상임금 못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이 근로시간단축법안 처리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자 노동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전체 노동자의 일자리를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자칫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위기다.

근로시간단축법이 통과되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법정근로시간이 1주일당 최대 52시간으로 제한된다. 하지만 휴일근무에 대한 규정이 모호해 16시간의 휴일근로시간이 더해져 1주일당 총 68시간을 법정근로시간으로 사실상 인정해왔다.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비정규직, 해법은 어디에?**

지난 2월, 6천여 명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위기를 맞으면서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비정규직' 문제가 이슈로 떠올랐다. 당시 민주당 노동대책위의 발표에 따르면 전국 1만1천여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계약 해지 노동자가 6천4백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가운데 4천6백여 명은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이미 해고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8월에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철담에 오른 최병승 씨가 농성 296일 만에 내려와 비정규직의 절박한 문제를 다시금 세상에 환기시켰다. 똑같은 자동차를 만들면서도 정규직에 비해 절반도 안되는 급여를 받고, 복지혜택도 거의 누리지 못하며, 계약이 끝난 후에는 또 다시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하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을 알린 것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우리나라 비정규직 비율은 1년 전에 비해 1.3% 감소하긴 했으나 이를 바라보는 여론의 시선은 곱지 않다. 비자금 조성과 조세 회피 등으로 재판에 계류 중인 CJ, 한화, SK를 비롯해 노조사찰 의혹이 제기된 신세계 등이 정권을 의식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했을 뿐 정부 차원의 거시적인 비정규직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올해 초 제기된 학교비정규직 문제는 연말 총파업으로 귀결됐다. 전국여성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가 참여하고 있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호봉제 도입, 정액급식비 지원, 상여금 지급 및 일선 교육공무원과 똑같은 복지포인트 지급을 교육부에 요구하고 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그럴듯한 해법을 제시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시간 근무에 따른 고용 창출을 제시하고 나섰으나 원래 의도대로 시간 근무제가 고용창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노동계는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2년짜리 시간제 비정규직을 양산하게 될 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년 이상 고용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하는 현행법 때문에 사업주들은 2년이 채워지기 전 해고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노동계에선 박근혜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이 대부분이다.

**통상임금 새 기준, 대법원의 판결은?**

통상임금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재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월 5일 대법원에서 열린 갑을오토텍 노동자들과 사측의 공개 변론에 세상의 관심이 모



박근혜정부는 대화와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을 통한 노사 관계 안정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을 국정과제로 내걸었다. 그러나 범국민적 참여와 역량 결집을 통해 경제사회 전반의 이슈를 포괄하는 사회적 대타협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은 상당 기간 동결될 것으로 보인다.

아졌다. 그동안 통상임금과 관련해 노사 간의 법정 공방이 수없이 있어왔지만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가 향후 160여 건의 통상임금 관련 사건을 다루고 있는 일선 법원의 판결에 기준점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노사 양측의 변호인단은 공방도 첨예했다. 사용자 측은 '상여금은 여러 사유를 포함해 연간 단위로 지급되거나 경영 상황에 따라 미지급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으로 일관했고, 원고인 노동자 측은 '상여금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많이 변했기 때문에 기본급과 다르지 않으며,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통상임금과 같다'라는 논리를 주장하고 있다. 오래 전부터 노사가 주장해온 논리와 달리 정작 논란을 증폭시킨 것은 사측의 새로운 주장이다.

사측은 경총의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기업의 부담이 첫해에만 38조원에 이르며 이후 매년 8조8600억원의 추가 비용이 생긴다'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노동자 측은 '해당 조사는 1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100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는 상용직이 전체 노동자의 66.7%를 차지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경총의 추계는 통계적으로 심각한 오류를 안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정부는 임금제도개선위원회와 임금체계 개편안에 대한 두 가지 방안을 준비하면서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첫 번째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분리해서 적용하고 있는 임금체계를 표준임금으로 통일하는 방안과 두 번째는 정기상여금이 근로 대가가 아니라는 것을 사용자 측이 입증하지 못할 경우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방안이다.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노사정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통상임금과 관련해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이 이번 판결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물론, 향후 노동환경에도 적지 않은 여파를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 공감에서 공존으로

## 공정무역과 공정여행으로 더불어 사는 삶



### 공정무역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의 어린이들은 6살 무렵부터 농사일을 돕기 시작한다.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100명 중 3명에 불과하다. 아이들은 아침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카카오열매를 따고 카카오콩 분리하는 일을 한다. 과테말라의 커피농장에서 일하는 농부는 미국에서 판매되는 커피 한 잔 값을 듣자, 그 돈이면 새 신발 한 켤레를 살 수 있다며 놀란다.

커피, 초콜릿. 이들 제품이 가진 모순은 가난한 나라에서 생산되고 부자 나라에서 소비된다는 점이다. 또 싼 값에 생산되어 비싼 값에 팔린다. 이렇게 불공정한 거래 구조는 세계 카카오 시장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중개상들이 카카오 농가로부터 카카오콩을 사들여 무역회사에 되판다. 수출회사는 다시 최초 카카오콩 가격의 두 배 가격에 다국적 식품기업에 수출한다. 다국적 식품기업은 이를 카카오매스, 카카오분말, 카카오버터 등으로 가공하거나 초콜릿 제품으로 생산해 전 세계로 판매한다. 코트디부아르에 있는 카카오 수출기업 대부분이 미국, 프랑스 등 외국 기업이다. 주요 가공업체 또한 카길, 네슬레 같은 다국적 식품기업들이다.

유럽 공정무역협회에 따르면 카카오 생산자의 수익이 초콜릿 가격의 5%라면, 초콜릿 회사와 무역조직이 얻는 수익은 그 14배인 70%에 이른다 주장한다. '세이프 더 칠드런'은 초콜릿 가격이 1천원일 때 농부들의 수익은 20원에 불과하다는 보

고서를 내기도 했다. 다국적 식품기업은 생산자에게 낮은 가격으로 카카오를 사들여, 임금이 싼 나라에서 가공한 뒤 자신들이 형성한 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지속적인 생산자 착취 구조를 만들고 있다. 이로 인해 카카오 생산자들은 빈곤층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 같은 구조는 커피 시장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거래의 불균형을 깨고 생산자가 정당한 수준의 이윤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공정무역(Fair trade)이다. 영국을 중심으로 한 공정무역 열기는 지난 몇 년 간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공정무역의 대표 품목인 커피, 초콜릿 외에 바나나와 면(綿)제품 등 품목도 다양해지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생산자에게 정당한 이익을 돌려준다는 공정무역의 개념을 인식하고 착한소비로 연결 짓는 의식이 확산된 결과다.



공정무역 바나나 <사진 : 페어트레이드 인터내셔널>



공정무역 제품 <사진 : 페어트레이드 코리아>



공정무역 조합에서 커피콩을 분리하는 과테말라 농민들 <사진 : 위키미디어>

### 공정여행

필리핀의 대표적 휴양지 보라카이는 1980년대 말부터 개발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원주민을 몰아내고 그 위에 호텔과 리조트를 건설했다. 원주민들에게 삶의 터전이었던 바다는 관광객들 차지가 됐다. 어업이 금지됐고 원주민은 수영마저 금지 당했다. 인도네시아 발리 해안가에는 다국적 호텔체인과 대형 리조트가 즐비하다. 이곳은 늘 물을 필요로 하고 실제로 물이 넘쳐난다. 하지만 인근 원주민 마을에는 물이 없다. 호텔과 리조트의 과도한 물 수요로 지하수까지 끌어간 탓이다. 마을 사람들은 매일 3km를 걸어서 물을 길어온다.

공정여행 운동은 1988년 영국에서 시작됐다. 대규모 관광지 개발에 따른 환경파괴와 원주민 공동체 파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현지인들의 삶과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그들의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한 여행을 하자는 것이다. 런던에서 만들어진 '투어리즘컨선'은 서구인들의 몰지각한 관광으로 파괴된 동남아와 아프리카의 참상을 고발하는 활동에 초점을 맞췄다. 미국에서는 '글로벌익스체인지'라는 단체가 동참했다. 착한 여행을 생각하는 단체들과 함께 여행 상품을 기획하는 여행사들이 줄을 이었다. 이들이 만든 상품을 모두 모은 '리스폰서블트래블닷컴'이란 인터넷 여행사도 등장했다. 전 세계 공정여행에 대한 대부분의 정보는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유럽과 북미의 여행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정여행 상품은 이미 수천 가지가 넘는다.

우리나라는 아직 걸음마 단계다. 이매진피스와 국제민주연대가 1세대 공정여행을 이끌고 있다. 이들은 공정여행 관련 사례와 다양한 정보들을 수집하고 공정여행의 대중화를 위한 패키지여행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연대와 공정의 가치를 추구하는 소비자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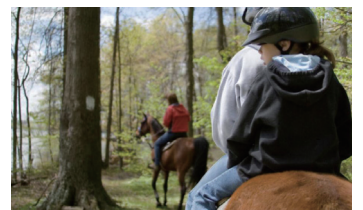
그동안 기업이 주도하는 대량생산과 대량소비가 미덕으로 자리 잡았다. 사람들은 값 싸고 질 좋은 상품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을 외면해 왔다. 우리가 저개발국의 저임금과 느슨한 규제에 기대, 과도하게 생산하고 소비하는 사이 그들의 삶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과잉 생산과 소비를 위한 노동력 착취라는 불공정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저개발국 노동자의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건전한 소비자들의 연대 의식, 공정거래, 착한 소비 등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기업 논리를 앞세운 무자비한 거대자본의 횡포에 맞서 시장에 따뜻한 인류애를 불어넣고 연대와 공정의 가치를 추구해야 할 때다.



잠비아 공정여행 <사진 : 리스폰서블 트래블>



네팔 공정여행 <사진 : 에티컬 트래블>



미국 공정여행 <사진 : 리스폰서블 트래블>



# 세상에 나 혼자인 것만 같은가요?

해아림 상담을 통해 지친 마음을 치유하세요.

개인상담뿐 아니라 가족상담, 심리검사 및 팀 단위 힐링 프로그램 등 실시

또 한 해를 마감하는 12월에 접어들었다. 이른 아침, 출근을 하려고 거울을 보다 문득 서글픔에 잠긴다. 피곤한 얼굴, 어느새 자글자글 터를 잡은 눈가의 잔주름.. 시들어가는 꽃 같고 바삭거리다 못해 곧 부서질 낙엽 같다. 빠듯한 월급으로 보험 붓고 적금 넣고 아이들 교육비 쓰며 아등바등 사느라 미처 내 마음을 살피지 못하고 산지 여러 해. 어느새 지나버린 청춘과 밥벌이의 고단함, 발전 없이 늘 제자리인 내 모습이 우울하지만, 가족을 생각하면 막연한 감상에 젖는 것도 사치인 것만 같다.

무기력하거나 우울함에 빠진 사람은 이러한 내면화된 전쟁에서 부상을 입은 군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감정 문제는 개인의 유전적 소인이나 의지의 영역으로만 여겨져 왔다. 그래서 분노나 우울함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지극히 개인적인 산물로 치부하여, 자신의 나약함을 비판하거나 의지박약을 타하는 편협한 시선도 존재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인간의 감정은 개인적·사회적 복합체이다. 물론 무엇보다 자신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감정은 자기마음과 의지만으로 완벽히 통제되거나 조종되기 어렵다. 따라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며, 적절한 대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될 것이다. 개인 감정의 건강한 관리는 개인의 건강한 삶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치유'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지친 마음을 치유하고, 케어해 주는 역할을 하는 심리상담사를 찾는 사람들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해아림'은 이렇게 알게 모르게 마음이 아프거나 지친 사람들, 고민으로 까만 밤을 하얗게 지새우는 사람들을 위한 쉼터다. 해아림은 '아픈 마음을 헤아린다'는 의미와 '햇살이 아름다운 숲'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뜻한다.

해아림에서는 개인상담뿐 아니라 가족상담, 심리검사 및 팀 단위 힐링 프로그램 등을 실시한다. 또 감정노동 강도가 높은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좌측부터 심리상담센터장 이은아, 심리상담사 허보연, 심리상담사 김지영

프로그램 '허그(Hug)'를 통해 직원들이 일하는 사업장에 직접 찾아가 마음을 치유해 주고 있다. 직장인들은 업무에 치이다 보면 자신이 회사에 이용당하다가 버려질 소모품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기 쉽다. 그러므로 회사가 직원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생각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좋은 마음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 있는 상시적 힐링 시스템이 필요하다. 마음 치유 프로그램들은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 못지않게 회사가 구성원들에 대해 애정을 갖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조합원들의 직무스트레스 및 슬럼프 관리는 회사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종사원의 정신건강이 악화되면 개인뿐 아니라 조직전체의 성과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해아림'의 개설은 조합원 개인의 안정에 도움이 되는 물론, 기업경영 측면에서도 상당히 고무적인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다. 요즘은 상담에 대한 인식이 예전에 비해 나아졌지만, 아직도 남의 시선을 의식해 쉽게 상담을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

해아림의 이은아 심리상담센터장은 심리 치료와 정신과 상담, 심리상담센터 방문 등은 정신병 환자들만의 전유물이라는 편견은 버려야 한다고 힘 주어 강조했다. "인간이 사회적 동물인 이유는 바로 사회적인 관계와 영향에 의해 부정적인 감정이 유발되는 것처럼, 사회적 관계의 원활한 소통과 교류를 통해 치유되고 해소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의지와 힘으로 극복될 수 없었던 정신적인 고통이라면 주변에 먼저 말을 건네고, 전문가와 상담을 해 볼 수 있는 용기도 반드시 필요하지요"

그렇다면 비밀유지는 얼마만큼 믿을 수 있을까. 혹시 민감한 동료나 상사와의 갈등 문제가 새어나갈 염려는 없을까? 이은아 센터장은 해아림 센터는 기본적으로 회사와 법인 자체가 다르므로 누가 상담을 받는지 전혀 알 수도 없고, 만에 하나 상담을 받는 자가 원치 않는 내용이 누설될 경우, 상담사는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대가로 자격이 박탈된다고 한다. 현재 해아림에서 상근하고 있는 심리 상담사는 이은아 센터장을 비롯해 허보연 상담사, 김지영 상담사 등 총 세 명. 모든 관련 학계에서 학위를 받고 7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전문가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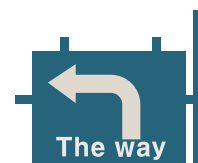
이들은 깊은 불안과 고민에 빠진 사람들의 생각과 고민을 경청하고, 흡사 마음으로 맺어진 가족처럼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절로 진심을 다하게 된다고. 이 센터장은 이 일을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때는 물론 대인관계나 개인사와 관련된 상담은 물론이고 가족, 부부간 갈등처럼 지인에게조차 말하기 어려운 깊은 문제로 우울증을 앓던 사람이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점차 예전의 활기를 찾게 되는 케이스라고 한다.

"케이스 별로 다르지만 마음의 병이 본인의 생각보다 깊은 분들도 종종 계세요. 이런 분들은 한 두 번의 상담으로는 나아지지 않지만, 꾸준한 상담과 케어를 통해 확실히 좋아지십니다"

심리적 문제를 쌓아두고 방치하면 그 문제들이 점점 쌓여 마음의 병이 생기고 이는 곧 무기력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모든 상처와 그로 인한 우울증과 심리적 문제는 치유 이후에는 자신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고, 타인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능력으로 환원된다. 그래서 해아림의 상담사들은 몇 번이고 강조한다. 현재 우울한 당신, 혼자 고민에 빠지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라고. 그리하여 치유된 이후의 놀라운 변화를 마음 속으로 그려 보고 행복해 지라고.

상담문의 | 1577-1402 (hae-a-lim@kt.com)

## 해아림 kt 심리상담센터





# 진화하고 있는 산재근로자 재활서비스

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의 원직장 복귀를 위한  
직장동료 화합 프로그램 등 운영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일하다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지원해주며 사회복귀 시까지 다양한 재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사업주는 근로자의 산재 보상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 산재보험제도가 그동안 널리 알려지고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산재보험을 부상당한 근로자를 치료해주고 보상해주는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산재보험을 운영 중인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가 직장에 조기 복귀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재활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각종 맞춤형 서비스를 실시 중이다. 먼저 직업재활급여는 직업훈련이 필요한 산재장해자에게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과 수당을 지급하는 한편, 산재장해자를 다시 고용한 사업주에게도 직장복귀지원금과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등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좋은 제도로 평가 받고 있다.

산재장해자는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의료기관에서 행하는 재활물리치료 뿐만 아니라 스포츠센터 등을 활용한 수영, 헬스, 에어로빅, 아쿠아로빅, 탁구, 요가, 필라테스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산재근로자의 일에 적합한 재활보조기구를 지원받음으로써 보다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복직 희망자를 위한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 운영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의 원직장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재활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 중이다. 최근 제공되는 산재보험 서비스는 산재근로자의 장애상태 및 특성, 심리상태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특징이 있다. 직장과 사회 복귀에 성공한 산재근로자를 멘토로 위촉하는 멘토링 프로그램, 산재근로자 가족 화합 지원 프로그램, 원직 복귀 전 작업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직업 복귀를 지원하는 직업복귀소견서 무료 발급 제도 등이 그것이다.

특히 2013년 5월부터는 요양 중인 산재 근로자가 복귀전 불안감을 해소하고 성공적으로 원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직장동료 화합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산재 발생 이후의 업무 공백으로 인한 산재 근로자의 심리적 부담과 불안을 해소하여 성공적으로 원직장에 복귀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직장 동료들의 따뜻한 환영과 배려일 것이다. 이에 따라 1년 미만인 통원 요양자 중 원직 복귀를 희망하는 산재 근로

자 총 25명을 대상으로, 의정부지사 등 12개 희망기관에서 시범 실시되었다.

직장동료 화합 프로그램은 시범 운영 기관의 자체 계획에 따라 작업현장 탐방하여 현장 적응하기, 멘토 초대를 통해 상처 치유하기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직장동료 화합 프로그램을 통해 산재 근로자가 걱정 없이 원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산재근로자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시행해온 맞춤형 통합서비스도 강화된다. 산재근로자의 심리와 신체 여건에 따라 상담부터 재활 계획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이와 같은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통해 산재근로자의 직업 복귀율이 2010년 45.5%에서 올해 8월 54.7%로 상승했다며 앞으로 서비스 대상을 더 늘리고 업무 절차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재근로자와 더불어 행복한 세상

2014년은 한국에 산재보험 제도가 시행 된 지 50주년이 되는 해이다. 여러 사회보험 가운데 가장 오래된 산재보험이지만 국가에서 시행하는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이를 필요로 하는 더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하지 못하거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산재보험 서비스의 최종 목표는 산재 근로자의 성공적인 직업과 사회복귀이다.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새 일터를 찾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산재근로자의 치료와 장애 극복은 물론 재취업에 성공할 때까지 산재보험의 다양한 재활지원 서비스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상처를 치료하고 후유증을 줄이는 차원을 넘어 건강한 사회인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산재보험은 계속 진화 중이다.





# 산전수전 정신으로 망 구축도 초고속으로 강북네트워크운용단 무선운용센터 강북시설팀 이규하 조합원



‘산전수전(山戰水戰)’. 주어진 목표를 이루기 위해 치르는 온갖 어려움을 뜻하는 말로 어떤 영역의 달인이 되어가는 과정을 빗대어 이르기도 한다. 두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살펴보면 산전수전 겪어가며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는 법. 국내 최초로 광대역 서비스를 개통시키기 위해 초고속 LTE 만큼이나 신속한 망 구축을 이룬 산전수전의 달인은 바로 각 지역네트워크운용단에서 일하는 조합원 자신들이다.

# 국내최초 광대역 LTE 서비스 개시

KT trade union  
22  
23

## 국내최초 광대역 서비스 개시

지난 9월 우리나라 이동통신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커다란 사건이 있었다. kt가 국내 최초로 광대역 LTE 서비스를 개시한 것이다. 비록 사업은 늦게 추진됐으나 엄청난 속도의 망 구축에 힘입어 타사보다도 먼저 초고속 광대역 LTE 서비스를 개시, kt가 이동통신시장의 선두주자로 우뚝 설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었다. 성공적인 서비스 공급으로 고객들로부터의 찬사가 이어졌을 때 비로소 큰 한숨을 쉬며 큰 성취감을 느끼는 사람, 이규하 조합원이 그 중 한 사람이다.

“광역 LTE 망 구축을 위해 RU 장비를 교체하러 불암산에 올랐을 때예요. 높은 산중에 있는 장비를 찾아내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며 산을 뒤졌지만 좀처럼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더구나 예고 없이 쏟아지는 장대비 때문에 도저히 시야를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등산객에게 물어 물어 작업 시작 6시간 만에 결국 장비를 교체할 수 있었어요. 어려운 작업이었지만 그 날 목표를 채웠을 때 느꼈던 보람은 정말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서울의 한강 이북 지역과 서울 강서, 인천, 경기도의 파주, 구리, 남양주 지역의 국소를 강북네트워크운용단이 담당하고 있다. 시설팀에서 근무하는 이규하 조합원의 업무는 바로 지난 9월 광대역 LTE 망 구축을 위해 담당 구역 내 약 1만 여 개의 국소를 대개체하는 것이다. 8월 말 광대역 주파수를 확보하고 불과 1개월 만에 수도권에 본격적인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게 된 것도 이규하 조합원 같은 시설담당 직원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업무를 조속히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 회사의 전략을 진지하게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이규하 조합원 말한다.

“kt가 LTE 사업을 타사보다 늦게 시작했던 만큼 LTE 서비스의 열망은 더욱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타사가 일찌감치 LTE 사업을 추진할수록 kt는 모든 프로세스가 순연되어 뒤따라 가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보니 속도나 안정성 면에서도 불리한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었고 주파수를 확보해 광대역화를 실현하는 것만이 회사와 조합원 모두 살 수 있는 길이란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 고객들의 즐거움은 나의 든든한 에너지

97년에 kt 시설구축부서에 입사한 이규하 조합원은 유선 인프라 구축 부서를 거친 후 와이브로와 3G 등 다양한 업무를 익히



며 전문 실무지식을 익혀왔다. 물론 광역 LTE 사업 자체는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분야이지만 이규하 조합원이 LTE 망 구축을 위해 발휘했던 첫 번째 요소는 바로 ‘인내’였다. “LTE 망을 구축하면서 매일 매일 타이이트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계속되는 작업에도 불구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건 고객들이 빨라진 다운로드 속도나 개선된 품질을 직접 피부로 느끼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고객들이 즐거워하는 모습만 봐도 힘이 솟는 이규하 조합원은 산전수전 경험을 통해 이미 무선네트워크 업무의 달인이 된 듯하다. 오랫동안 시설구축부서에 있다 보니 그는 언젠가 최적화와 장비 선정, 안테나 방향 등을 직접 선정하는 일을 해보길 원한다.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이 설치한 시설이 얼마만큼의 커버리지를 가져가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며 좀더 다양하고 넓은 업무를 경험하고 싶기 때문이다. 그렇게 업무에 몰두하고 있는 그에게 시설구축만큼 관심이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바로 ‘가족’이다.

“중학교 1학년인 딸아이와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이 있어요. 아이 엄마와 맞벌이를 하다 보니 아이들과 대화할 시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이가 사춘기라 어떻게 다가가고, 대화해야 하는지 막힐 때가 있어요.

아이들과 아내에게 미안한 것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아직 말은 안했지만 내년엔 가까운 일 본으로 가족과 함께 외국 여행을 다녀오려고요. 평평 터지는 광대역 LTE처럼 저희 가족의 행복도 쑥쑥 자라나길 바랍니다.”





# '자부심'은 곧 LTE 구축의 에너지

충청네트워크운용단 품질개선부 류동렬 조합원



문득 자고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니 세상이 온통 눈천지로 변해 있는 것처럼, 마치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광대역 주파수를 획득한지 눈 깜짝할 사이에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이 kt의 LTE 커버리지로 물든 것. 하얀 눈 위로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썰매를 타고 선물을 주러 나타나 듯 마치 고객들에게 광대역 LTE 서비스를 선물하러 류동렬 매니저가 빨간 선물 꾸러미를 풀어헤친다.

# 광대역 LTE 서비스 키워드

KT trade union

24  
25

### 안테나만 봐도 보람이 쑥쑥

“바깥을 돌아다니다보면 사방에 저희가 설치한 안테나들이 눈에 들어와요. 서비스가 잘되고 있는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수시로 확인하는데요. 짧고 긴박한 시간동안 목표를 완수하는 것이 어렵긴 하지만, 조금이라도 일찍 고객들이 좋은 품질의 서비스를 누리게 되었을 때 네트워크 담당자로서 느끼는 자부심이란 이로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 망 구축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소회에 대해 류동렬 조합원은 '자부심'이라는 짧은 표현으로 정리했다. PCS 사업이 붐을 이루던 지난 97년, '018'로 시작되는 한솔PCS에 입사해 네트워크 업무를 시작한 류 조합원은 이후 회사가 합병의 역사를 거치며 현재의 위치에 이르고 있다. 그가 소속되어 있는 충청네트워크운용단 품질개선부는 유선과 무선 조직이 통합되면서 각 업무담당자를 모아 올해 초 새롭게 출범한 조직이다. 류 매니저의 업무 영역은 3G를 비롯해 최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역 LTE 등 무선분야이며, 회사에서 확정된 무선사업이 현장에서 서비스되기까지 예산 규모와 설계 형태/소요 물량/작업 기간 등을 산정해 본사와 현장을 연결하는 핵심 커뮤니케이션 및 관리 역할을 하고 있다.

“주파수 확정 전에만 해도 광대역과 LTE A를 놓고 어떤 서비스에 투자해야 하는지 결정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주파수 확정 전부터 경쟁사에서 일찌감치 LTE A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저희도 900Mhz LTE A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파수가 확정되고 내년 3월 본격적인 광대역 서비스가 론칭되면 한시적으로 개통했던 기존 900Mhz LTE A는 서비스를 잠시 중단했다가 향후 다시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에요.”

### 즐거운 마음으로 일터 가꾸어 가길

kt의 LTE 망 구축은 지금까지 아무런 차질 없이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렇다고 어려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LTE 사업이 확정되고 목표가 설정되면 정해진 시간 안에 목표를 완수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시시때때로 난관을 만나게 된다.

“RU 장비 대부분이 외부 사옥에 있다보니 장비를 교체할 때마다 건물 소유주와의 이해관계에 직면하게 됩니다. 평소 협조적인 소유주라 할지라도 협의가 잘 풀리지 못해 아무런 예고 없이 설치를 반대하게 된다면 저희들도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타 부문과의 협조 문제인데요. 촉박한 시간에 수천 개의 RU 장비를 어렵사리 성공적으로 교체했는지라도



DU와의 광케이블 연결이 원활하지 못하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번 LTE를 구축하면서 일시적으로 폭발적인 업무를 처리하다보니 인터넷사업부와 무선네트워크 부문 모두 과부하가 걸려 애를 먹기도 했습니다.”

녹록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류 조합원은 특유의 침착함과 노련함으로 어려움을 하나하나 해결해가고 있다. 최적화 작업을 위해 RU장비의 전파 세기를 모니터링하면서 담당자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현장에서 만난 충북 엔지니어링팀 박홍희 조합원은 “항상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는 선배님의 그런 점을 꼭 배우고 싶다”고 류 조합원을 치켜세운다.

매섭게 부는 바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류 조합원이 차분하게 장비를 점검하는 모습이 웬지 믿음직스럽다. 단 시일 내 LTE 망을 구축하느라 숨 가쁘게 1년을 보냈지만 그는 세상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행복을 만끽하느라 하루하루가 즐겁다고 말한다. 첫 아이 출산 이후 10년 만에 얻은 늦둥이가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고 있기 때문이다.

“아이를 얻고 나서 주변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제가 성당에 다니는데요. 하나님이 저희 가정의 행복을 위해 아이를 주신 거라 생각합니다. 요즘 들어 회사에서 '많이 힘들다'는 얘기를 자주 듣곤 하는데요. 그렇다고 너무 위축되지 말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일터를 가꾸어갔으면 합니다. 모두 희망을 갖고 즐겁게 회사 생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kt, 아프리카 통신시장 진출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개최한

‘아프리카 혁신 정상회의 (TAS) 2013’ 그 성과와 의미



최근 새롭게 떠오르는 신흥시장 아프리카. 과거 기아와 내전, 에이즈 등과 같은 부정적 이미지로 얼룩진 '검은 대륙'에서 이제는 '황금 시장'으로 불리며 지구촌 마지막 성장엔진으로서 날로 관심을 더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세계 투자 경기는 침체하고 있지만 아프리카 투자 경기는 상승세로 해마다 성장하고 있는 중이다. 세계 시장의 변방에서 중심지로 변화하고 있는 아프리카, 그 한가운데에 kt가 동아프리카 르완다와 손잡고 아프리카 대륙에서의 정보통신기술(ICT) 사업 확대에 나서고 있다.

kt는 지난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아프리카 르완다 수도 키갈리에서 르완다 정부와 공동으로 '아프리카 혁신 정상회의 (TAS : Transform Africa Summit) 2013'을 개막했다. 이번 아프리카 혁신 정상회의 2013은 단순히 전시 행사를 넘어서 르완다, 케냐, 나이지리아, 우간다 등 아프리카 12개국 정상과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세계은행 등의 국제기구, 그리고 세계 주요 글로벌 기업 등 1천여 명이 참석해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한 아프리카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로 그 의미를 더했다.

kt는 TAS 2013 행사를 총괄하고 기간 동안 LTE WARP와 함께 스마트 전자상거래, 스마트 교육, 스마트 미디어, 그리고 스마트 솔루션이라는 5가지의 테마로 총 21개의 최첨단 아이템을 선보여 한국의 우수한 정보통신 기술을 과시했다.

### kt, 아프리카 전역으로 르완다 사업 모델 확산

이번 TAS 2013 행사가 열린 르완다는 ICT를 통해 기존의 농업 기반 사회를 지식정보기반사회로 전환해 오는 2020년까지 중진국으로 발돋움한다는 야심 찬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1,1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르완다는 현재 휴대전화 보급률이 전체 인구의 55%에 이르며 약 100만 명이 인터넷을 사용 중이다.

kt는 르완다에 1,500억 원을 투자해 3년 이내에 르완다 전국에 4G LTE를 구축하는 대신 앞으로 25년 동안 LTE 독점 사업권을 갖게 된다. 첫째해 수도 키갈리 등을 중심으로 LTE망이 설치되고 다음으로 주요 도시지역으로 확대된 뒤, 마지막 해에는 농촌 등 르완다 전역에서 LTE 서비스가 가능하게 된다. 이번 kt 투자 협력 모델은 르완다 정부와 세계 최초로 민관협력(PPP) 사업 모델을 적용한 것으로 자본이 부족한 르완다 정부가 사업권, 주파수, 백본망을 현물 출자하고 kt는 현금 출자와 노하우를 투입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kt의 르완다 LTE 사업에 진출과 TAS 2013 행사운영은 인접 동아프리카 국가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 르완다에 이어 kt는 케냐정부와도 4G LTE 기반의 모바일 브로드밴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와 연관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IT서비스 회사를 합작투자 형태로 설립하기로 했으며 양쪽이 공동 참여하는 사업 협의회를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해 추진하기로 했다. kt의 잇따르는 동아프리카 국가와의 ICT 기술 수출과 시장 진출은 앞으로 아프리카의 다른 지역으로 확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아프리카 경제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제공

우리나라 통신 기업이 한 국가의 전국적인 모바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독점 사업권을 획득한 것은 국내 최초다. 이는 국내 정보통신의 발전을 이끌었던 kt가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국가 정보통신 및 사회 경제 발전 모델을 수립해 적극적으로 시장 개척을 한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 단순 네트워크 사업이 아니라 국가 경제와 사회 발전을 위해 그동안 쌓은 경험과 보유기술을 해당 국가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토대로 제공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kt의 아프리카 정보통신 시장 진출 사업은 단순히 정보통신 시장 확대 뿐 아니라 브로드밴드 구축을 통해 적은 비용으로 아프리카 전체의 경제 발전을 이끌어내는 한 전기가 될 것이다. 아프리카에 진출하는 다른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이를 활용해 원격 회의, 수출입 등 중요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아프리카의 투자 유치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프리카 통신 인프라 수준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해 사회 전반의 수준 개선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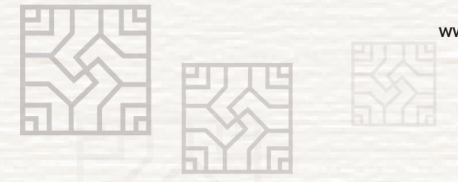
### 글로벌 IT 선구자로 발돋움하는 IT 서포터즈 프로젝트

또한 kt는 아프리카 정보통신 시장진출 뿐 아니라 무상 IT 교육을 펼치는 IT 서포터즈 프로젝트를 진행해 르완다에 IT 서포터즈를 파견하기로 했다. 르완다 주민은 물론 현지 기업, 학교 등을 대상으로 IT 서포터즈가 직접 스마트기기 기반 맞춤형 교육을 하며 나눔과 봉사를 실천해 르완다 현지의 IT 저변 확대에 힘을 예정이다.

kt의 IT 서포터즈 프로젝트는 기존 국제 봉사단들의 단발성 IT 교육과 달리 장기적으로 아프리카에 희망의 새싹을 심는 프로젝트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ICT 리더 기업으로서 국내를 벗어나 글로벌 동반성장, 글로벌 사회공헌에도 힘쓰겠다는 kt의 의지가 엿보인다.

아프리카 대부분의 나라가 많은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성장잠재력이 큰 상태지만 아직 개발도상국 수준에 머물러 있는 만큼 앞으로 이들 국가는 국제사회와의 경제협력을 간절히 필요로 하고 있다. 아직 개척되지 않은 마지막 시장인 아프리카의 매력과 가치는 무궁무진하다. 이번 kt의 아프리카 정보통신기술 사업 진출과 협력 모델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아프리카 진출과 더 많은 경제협력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신윤복] 상춘야흥

# 한 잔의 술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멋

## 우리의 전통 음주문화를 들여다보다

한국인의 알코올 섭취량은 독주를 즐기는 러시아 사람들에 비교될 정도로 많은 편이다. 우리나라가 그리 춥지 않은 온대 기후의 나라이면서, 세계적으로 알코올 소비량이 많은 것은 독특한 현상이다. 우리는 기뻐서도 술을 마시고 슬퍼서도 술을 마신다. 서로가 만나는 반가움에도 술을 마시고, 헤어지는 아쉬움에도 술을 마신다. 때로는 혼자서 여유롭게 술을 즐길 때도 있다. 술은 그래서 우리 곁에 항상 있다.



[기산 풍속도] 기생전주가하는 모양



[기산 풍속도] 색주가 모양

### 음식으로서의 전통술과 노동의 술

우리 민족은 서양과 달리 예부터 술을 음식으로 받아들였다. 술을 따로 존재하는 음료로서가 아니라 식사와 같이 하는 반주로 즐겼다. 술상에서도 늘 술을 '어루만지는' 음식인 안주(按酒)를 곁들여 함께 했다.

우리 전통술의 큰 특징은 주식으로 삼는 쌀로 빚는 술이 많다는 점이다. 상대적으로 과일로 빚는 술이 적고, 약재로 빚는 술이 많다. 이때 발효는 쌀과 누룩이 주도하고, 약재는 향이나 맛이나 효능을 위하여 첨가물의 형태로 들어간다. 누룩은 서양 문화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쌀농사를 많이 짓는 동아시아의 발효 문화권에서 많이 사용하는 발효제다. 대표적 발효주인 막걸리는 서민층의 고된 농사일의 순간을 함께 하는 노동의 술로 존재했다. 이에 반해 이름 있는 집마다 고유의 방식대로 빚은 각종 맑은 가양주는 제사나 손님접대에 올리는 정성과 예의를 상징하는 술이었다.

### 소통의 전통 술문화

특히 조선시대 서민의 술문화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개방형 주막 문화다. 주막은 단지 주점으로서가 아니라 누구나 언제든지 찾아들어와 쉴 수 있고, 가벼운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장소였다. 오늘날 치면 주막은 식당 겸 주점이며, 휴게소이자 여관이었다. 그곳은 길 떠난 나그네의 유일한 쉼터이자 사람들 간의 정보 교류의 장으로 역할을 했다. 오가는 사람들이 만나 서로가 가진 소식을 주고받았다. 그 정보는 그다음에 들르는 주막에서 다시 확산되었다. 서민생활의 중요한 네트워크 역할을 했던 것이다. 당시에는 주막에서 직접 술을 빚어 음식과 함께 술을 팔았다. 전국 각지 주막에서 팔던 고유의 술은 하나의 음식이기도 했지만 소통의 도구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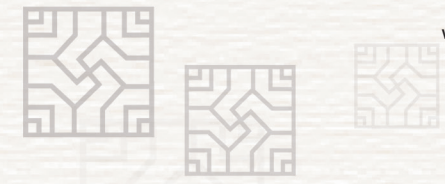
일제식민지 이후 실시된 주세령에 따라 특색 있는 술을 직접 빚던 약 12만개의 주막은 몰락하고, 그 대신 술을 사다가 파는 색주가 같은 전문 술집이 생기기 시작했다. 경북 예천 나루터의 삼강주막을 마지막으로 전통 주막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 갔다.

일제강점기 시대, 일제의 민족문화 말살 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된 우리 전통술 제조 금지와 단속으로 다양한 전통술과 고유의 음주문화는 단절되었다. 이때부터 우리의 술은 개량식 약주 및 막걸리와 소주로 획일화되었고, 해방 이후에는 완전히 새로운 음주문화가 우리 사회에 형성되기에 이른다.

### 제대로 술 마시는 법, 주도(酒道)

주도란 술을 마실 때의 예의를 가리키며 주도 혹은 주례(酒禮)라고도 한다. 예를 들어 어른이 술잔을 들어서 아직도 다 마시지 않았으면 젊은이는 마시지 않아야 하며, 어른이 마시고 난 뒤에 마시는 것이 예의이다. 술잔을 어른께 먼저 드리고 술을 따를 때 도포의 도련이 음식에 닿지 않도록 왼손으로 옷을 쥐고 오른손으로 따르는 풍속도 있다. 이런 예법은 소매가 넓지 않은 옷을 입고 사는 현대에도 원





[기산 풍속도] 배노름 하고



[김홍도] 들밥

손으로 오른팔 아래 대고 술을 따르는 풍습으로 남아 있다. 주도는 술자리 예의로서 시작했지만 오늘 날에 이르러서는 술을 강권하거나 연장자가 주는 술을 어린 사람이 거절하지 못하는 잘못된 술자리 도리로 오해받기도 한다. 그만큼 오늘날 제대로 된 음주문화를 교육 받지 못한 탓이 크다. 하지만 우리도 일제 강점기 이전에는 음주 예절로서 '항음주례'를 지금의 초등학교인 소학에서 학생들에게 필수적으로 가르쳤다. 그래도 모자라 각 가정과 학교, 심지어는 관청에서 까지도 가르치기도 했다.

### 술을 음미할 줄 아는 풍류

흔히 고상한 음주문화라면 와인이나 위스키 등 서양 술과 관련한 문화를 떠올리지만, 우리도 그에 결코 뒤지지 않는 고상하고 훌륭한 음주문화 풍속을 예부터 가지고 있었다. 술을 마시는 예절이 따로 있었음은 물론, 술을 마시는 모임은 모듬지기 노래와 춤, 시를 곁들임으로써 운치를 돋우어 우아하고 고결한 풍류로 승화시켰던 것이다. 음주와 문학은 따로 떨어져 생각할 수 없었고, 그러한 풍류 속에서 수많은 주호(酒豪)와 주선(酒仙)을 낳기도 했다.

옛 조상들은 명절이나 절기에 맞게 다양한 술을 즐겼다. 풍류를 즐기는 데는 방법과 시기가 있었다는 의미다. 새해 첫날에 마시는 도소주, 대보름에 마시는 귀밝이술, 단오에 마시는 창포주, 추석에 마시는 국화주 등 다양한 술들을 운치 있게 즐긴 풍습을 살필 수 있다. 또한 일상에서 바쁜 농사철 새참과 함께 마시는 막걸리 한 잔은 송골송골 맺혀 있는 땀과 타는 갈증을 말끔히 씻어 주고 허기도 채워주었다.

### 절제의 음주문화

“벗과 마주 앉아 술잔 기울이니 산뜻이 절로 피고  
한 잔 또 한 잔에 흥취는 무르익네  
이제 나 취해서 쉬고 싶으니 그대 이만 돌아가게나  
내일 아침에도 술 생각나면 거문고 안고 다시 오게나”

주선이라 불리는 이태백의 '대작(對酌)'이라는 시다. 술은 즐기되 지나치지는 않는 절제의 음주문화를 엿볼 수 있는 시다. 우리 전통 음주문화의 가장 큰 특징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바로 이 같은 절제 미학의 추구이다. 술을 향락의 도구나 마취의 수단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사교와 접대의 도구로 인식했다.

가정에서 술을 빚는 경우는 제사용이나 귀한 손님을 대접하는 경우로 제한하도록 했다. 제사와 손님 접대에 술은 하나의 정성이었다. 정성들여 빚은 술을 제사상에 올리고 손님 주안상에 올렸다. 마시고 취하는 환각물질로서의 술이 아닌 신명을 받들고 교제를 위한 접대의 수단으로 술을 인식하도록 하는 문화를



[흥루대주] 기생집에서 술상을 기다리다



[유곽쟁웅] 유곽에서 사내다움을 다투다

만들어 정착시켰던 것이다. 충북 괴산군 증평읍 남하리에서는 일명 '술바위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약 500여 년 전 그곳에는 옥녀가 베틀에 앉아 있는 형상의 옥녀봉이 있었는데 이곳은 나그네가 목을 축일 수 있게 단 한 잔의 술이 나온다고 해서 술바위라고 이름지어졌다. 그런데 어느 날 길을 지나던 스님이 한 잔으로 부족했는지 더 많은 술을 마시고자 지팡이로 술바위를 마구 내리쳤다. 그 이후로 그 바위에서는 더 이상 술이 나오지 않게 되었다고 이야기는 전한다. 이러한 종류의 우리 민담은 수없이 많은데 대전의 식당산에 전해오는 얘기도 비슷한 내용이 있다. 이와 같이 오래부터 내려오는 술과 관련된 민담과 전설들에서 우리가 추구하던 절제의 미학을 엿볼 수 있다.

술이라는 말은 원래 '불의 성격을 가진 물'을 뜻하는 '수불'에서 시작했다가 세월과 함께 단순화 되어 '술'이라고 줄여서 불리게 되었다. 곁은 물처럼 액체이지만 성격은 정반대인 불의 속성을 가졌다는 술의 어원에는 우리 조상의 지혜로움이 담겨 있다. 술은 일단 마신 후에도 불처럼 잘 다스려야 후환이 없다. 술이 가진 불의 속성이 과하게 되면 자신의 몸과 마음을 태우고 결국엔 타인까지도 태울 수 있다는 경고의 표현인 것이다.

술은 인간의 주식인 곡물과 과실을 원료로 하는 만큼 시대와 문화, 그리고 지역을 초월해 귀중한 음식으로 대접받았다. 주로 축제나 제사 때 엄격한 절차에 따라 음주가 허용되었으며 마시는 양도 제한이 있었다. 술은 한 시대를 반영하고, 그 시대의 문화를 비춰주는 거울이다.

술에 대해 잘 알고 잘 마시는 사람을 가리켜 흔히 '주당酒黨'이라 부른다. 요즘 사회에서 주당은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으로 인정되고, 화끈한 사람 또는 인간미 넘치는 사람으로 미화되기도 한다. 그러나 주당으로 불리는 사람 중 과연 술의 진정한 맛을 아는 이는 얼마나 될까. '술고래 주당'이 아니라 술의 맛과 멋을 제대로 음미하고 절제를 아는 진정한 주당이 되어야 할 것이다. 술은 삶의 가치와 품격을 높이는 하나의 문화로서의 도구이지, 목적 자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 〈술꾼의 18단계〉

- |  |  |
|--|--|
| 1. 불주(不酒) : 술을 아주 못 먹진 않으나 안 먹는 사람. 9급                         | 9. 학주(學酒) : 술의 진경을 배우는 주졸(酒卒), 1급                          |
| 2. 외주(畏酒) : 술을 마시긴 하지만 겁내는 사람. 8급                              | 10. 애주(愛酒) : 술을 취미로 맛보는 사람. 주도(酒徒) 초단                      |
| 3. 민주(憊酒) : 마실 줄도 알고 겁내지도 않으나, 취하는 것을 민망하게 여기는 사람. 7급          | 11. 기주(嗜酒) : 술의 미에 반한 사람. 주객(酒客) 2단                        |
| 4. 은주(隱酒) : 마실 줄도 알고 겁내지도 않고 취할 줄도 알지만, 돈이 가까워서 숨어서 마시는 사람. 6급 | 12. 탐주(耽酒) : 술의 진경을 체득한 사람. 주호(酒豪) 3단                      |
| 5. 상주(商酒) : 마실 줄도 알고 좋아도 하면서 무슨 이득이 있을 때에만 술을 내는 사람. 5급        | 13. 폭주(暴酒) : 주도를 수련하는 사람. 주광(酒狂) 4단                        |
| 6. 색주(色酒) : 성생활을 위해 술을 마시는 사람. 4급                              | 14. 장주(長酒) : 주도 삼매에 든 사람. 주선(酒仙) 5단                        |
| 7. 수주(睡酒) : 잠이 안 와서 술을 마시는 사람. 3급                              | 15. 석주(惜酒) : 술과 인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주현(酒賢) 6단                 |
| 8. 반주(飯酒) : 밥맛을 돋우기 위해 술을 마시는 사람. 2급                           | 16. 낙주(樂酒) : 마셔도 그만, 안 마셔도 그만, 술과 더불어 유유자적하는 사람. 주성(酒聖) 7단 |
|  | 17. 관주(觀酒) : 술을 즐겨워하되 이미 마실 수 없는 사람. 주종(酒宗) 8단             |
|  | 18. 폐주(廢酒) : 술로 말미암아 다른 술 세상으로 떠나게 된 사람. 9단                |

- 시인 조지훈이 술을 마시는 격조, 품위, 스타일, 주량 등을 따져 밝힌 '주도(酒道) 18단계'





# 사랑하라, 솔직하고 단순하게

밤늦게 잠은 안 오고 유선 방송 채널을 돌리다가 재방송하는 드라마를 보았다. 주인공 남녀는 서로 사랑하면서도 둘다 끊임없이 자존심을 내세우고 감정을 일일이 계산하느라 언제나 섭섭한 마음만 잔뜩 가슴에 품고 지낸다. '쫓쫓, 사랑만 하기에 시간도 부족하건만.'

입이 심심하던 차에 문득 선물로 들어왔던 육포와 와인 세트가 생각났다. 육포를 먼저 꺼내놓고 잠깐 와인 잔과 따개를 찾으러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육포가 사라져버렸다. 검은 것이 휘익 재빠르게 달아나는 것이 보인다. '이 녀석 루니구나.' 육포 한 덩어리를 입에 물고 우리집 개 루니가 달아나는 중이었다. 주인이 허락하지 않은 음식은 탐내지 말라고 그토록 가르쳤는데, 달아나는 것을 보니 혼날 줄 알고서도 본능이 시켜서 저지른 모양이다. "음식 훔쳐 먹는 건 쥐나 하는 짓이야." 훔친 음식 때문에 개로서의 정체성을 의심받게 된 루니는 이미 물고 온 육포를 먹지도 못하고 바닥에 내려놓은 채 눈치만 슬슬 본다. 나는 신문지 몽둥이로 개의 주둥이를 툭툭 때리면서 반성 좀 하라고 일러주었다. 고기만 보면 사족을 못 쓰는 단순한 녀석.

## 사회적 잣대로 재단한 욕망

장 시메옹 샤르댕(Jean Simeon Chardin, 1699~1779)의 그림「뷔페」를 보면 먹을 것들을 앞에 두고 하염없이 쳐다보면서 있는 개가 있다. 이 개도 틀림없이 이 루니처럼 테이블에 차려진 음식은 절대로 먹지 못하도록 훈련받았을 것이다. 그런 개에게 지금 커다란 유혹이 펼쳐져 있다. 특히 탐스러운 석화는 테이블 가장자리에 놓여 있어 앞발만 살짝 들어도 닿을 수가 있다. 개는 지금 갈증하며 망설이고 있다. '주인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도 조금만 먹으면 안될



장 시메옹 샤르댕, 「뷔페」 1728

까.' 그림을 잘 들여다보면, 석화 껍질로부터 굴을 떼어내 먹기 위한 칼이 접시 밑에 놓여 있다. 이것은 개에게는 강력한 금지의 의미이다.

칼뿐 아니라 음식과 잔이 테이블 위에 매우 불안정하게 배치되어 있다. 왼쪽 가장자리에 보이는 유리잔은 제대로 놓여 있지 않아서 곧 떨어져 깨어질 것 같고, 과일들은 장식을 위해 층층이 쌓여 있는데 잘못 건들면 곧 우르르 쏟아져버릴 것만 같다. 만일 개가 음식을 입으로 물어가기 위해 테이블에 앞발을 올려놓는다면, 바로 그 순간 칼을 바닥으로 떨어지고 유리잔은 깨어지고 과일 들은 굴러 떨어질 것이다.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의 화가 샤르댕은 우화처럼 교훈이 숨어 있는 그림을 주로 그렸다. 정물들이 가지고 있는 숨은 상징성까지 심층적으로 해석하면, 그림의 내용은 단순히 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널리 전하는 훈계가

된다.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음식과 물건은 서양에서는 전통적으로 성적 욕망과 관련된 상징물로 여겨져 있다. 이를테면 싱그러운 과일들은 젊고 탐스러운 육체를 암시하며, 유리로 된 병과 잔은 육체의 순결을 말해준다. 그런가 하면 음식 중에서 조개류, 특히 껍질이 벌어져 있는 싱싱한 석화는 노골적인 유혹의 모습과 관련되어 있다. 개는 여기서 성적 쾌락을 탐하고 있는 어리석은 인간을 대표하고 있다. 영원하지 못한 본능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어리석다고 보는 것이다.

## 부끄럼 없이 본능에 충실하기

개는 물론 인간보다 본능에 충실하다. 샤르댕의 그림 속에서 개는 헛된 본능을 좇는 상징으로 나오지만, 개는 그런 본능적인 욕구 못지않게 인간과 함께 하려는 욕구 또한 강한 동물이다. 그 욕구에 솔직한 것이 또한 사람과 다른 점이다. 개를 키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네 발 달린 짐승이 인간을 어찌면 이렇게 좋아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보았을 것이다. 좋아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개는 인간을 좋아한다. 아무리 못난 인간이라도 개에게는 자기 주인이 가장 멋지고 훌륭한 사람이다.

동물을 주로 그렸던 영국의 화가 에드윈 랜드시어(Edwin Landseer, 1802~1873)가 그린「늙은 양치기의 상주」을 보면, 주인이 죽은 후에도 여전히 주인 곁을 떠날 줄 모르고 관 위에 머리를 올려놓은 채 그리워하는 개가 등장한다. 인간에 대한 개의 사랑이 느껴져서 마음이 쩡해지는 그림이다. 인간과 개 사이에는 아주 오래된 억겁의 인연이 얽혀 있는 것 같다. 인간의 아득히 먼 조상인 원시인이 동굴 생활을 하며 주변 맹수들의 위협으로부터 가까스로 스스로를 보호하며 살고 있을 무렵, 늑대 못지않게 무섭게 생긴 네 발 달린 짐승 하나가 인간에게 꼬리를 흔들며 다가온다고 상상해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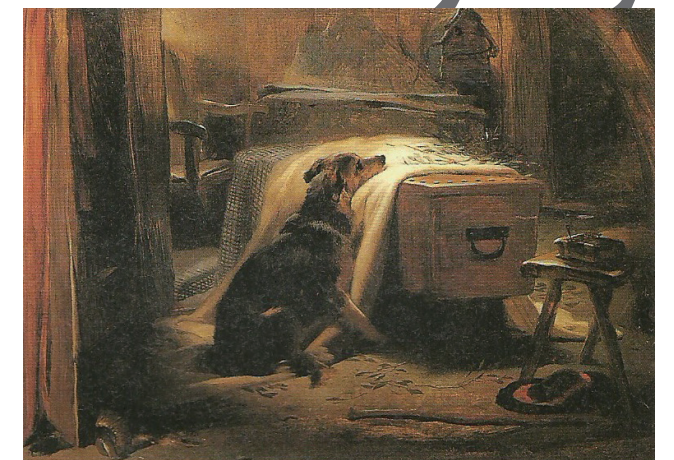
개는 인간 편이 되어서 다른 네 발 달린 짐승들을 물리쳐주고, 토끼와 꿩도 대신 잡아다가 인간 앞에 물어다 놓았다. 네 발 달린 짐승들 사이에서 개는 인간 편에 선 괴상한 변절자에 이단아였겠지만, 인간에게 개는 한없이 고마운 존재였을 것이다. 인간은 개들이 물어다준 사냥감에 요리해서 개와 함께 나누어 먹었고, 이렇게 해서 인간과 개의 오랜 동반 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수많은 복작

한 이해관계들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개와 함께 살기위해 많은 규율을 만들고 개를 훈련시켜야 했다. 식탁 위에 음식을 먹지 말 것, 야생 습성을 버릴 것, 아무나 물지 말 것, 아무 곳에서 변을 보지 말 것 등등. 하지만 개는 인간을 여전히 단순한 방식으로 좋아한다. 개는 하루에도 수십 번 인간에게 반갑다는 인사를 하고 행복하다는 표현을 한다. 꼬리 흔드는 것만으로 부족한지 온 몸을 흔들면서 뛰어다니고, 너무 좋아서 벌러덩 드러눕기도 한다.

그런 개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실컷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는 인간이 개보다 열등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못난 것도 없는 내가 왜 매달려야 할까, 내 모든 것을 바쳐 사랑할 가치가 있는 사람일까, 내가 이렇게 좋아했는데 나를 떠나버리면 억울해서 어찌지, 나 혼자 상처받으면 어찌지.' 이런 의심 때문에 사람들은 정작 사랑은 않고 후회만 할 뿐이다. 그때 더 사랑할 걸 하고.

개는 후회하지 않는다.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소통할 줄 아는 현명한 동물이기 때문이다. 또한 사랑을 준 것만큼 되돌려 받지 않더라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인간이 미처 깨닫지 못한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동물이기도 하다. 다른 것은 몰라도 사랑만큼은 개처럼 해야 한다. 사랑하라. 개처럼 솔직하고 단순하게.

출처 | 이주은 <그림에 마음을 놓다> 엘리스



에드윈 랜드시어, 「늙은 양치기의 상주」 1837



# Voices of Readers

고객의소리

조합원 여러분의 의견은 더 좋은 [마음이 통하는 '길']을 만드는 데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마음이 통하는 '길']을 읽은 느낌과 생각을 (kgb@kt.com)으로 보내주세요. 조합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 남울산지사Mass2팀 신용학

모든 직원이 스트레스 받으며 직장 생활 하는중에도 유머를 생활속에 접목시키면 삶에 활력이되고 즐거운 인생을 살수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소식지에서 자주 유머있는 글이 화보에 올라오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직원이 스트레스 풀면서 즐거운 직장 생활을 하길 바라면서 화이팅^^

## 대구네트워크운용단 품질개선부 성현주

KTTU news 를 보면 KT의 소식을 간략하게 정리해 놓아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눈에 보여 좋았습니다. 그리고 매월 한가지 테마로 복지 등에 대해 Q&A가 많았던 것들을 마지막 페이지 한부분에 실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좋아하는 길따라 멋따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내용을 알고 가면 여행이 더욱 즐거워지니까요.

## 기업고객센터 부산고객센터 박명덕

KT 전산시스템의 신기원을 연 '제네시스 시스템' 현재는 현장에서 사용하는데 많은 문제점과 개선이 필요 합니다. 현장의 개선 목소리를 잘 반영하여 KT 가족들의 행복을 여는 사랑 받는 '제네시스 시스템'이 되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 IMO운영센터 솔루션 총괄팀 정원환

막 내린 'LTE 주파수 경매'를 돌아보다를 읽고 주파수에 대한 통신사들의 입장과 어떻게 하면 고객과 기업의 공동의 이익이 될 수 있는, 향후 주파수 할당 정책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세제 개편안 무엇이 문제인가를 읽고, 조세형평성과 과세형평성에 부합하는 조세정책이 필요한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 호부터는 금융상품의 상세한 상품 설명 및 장/단점(risk)등 들에 대한 내용을 추가해주세요.

## 구매전략실 계약센터 조명희

오랜만에 노동조합 소식지를 읽어보네요. 예전보다 얇아진 듯한 느낌이 있네요^^ 평소에도 러브 인 아시아 프로그램 가끔 보는데 UCC 소식 잘 읽었습니다. 다문화가정이 많아지는 추세라 그에 걸맞는 통신상품도 만들어지면 수익상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었습니다. 중도 애기도 재밌었습니다. 지난 여름에 다녀왔는데 슬로 시티 답게 여유롭게 잘 쉬다왔던 기억이 나네요.

## 수도권 서부본부 주안지사 황정희

이번호 현장 24시 '제네시스란, kt 가족들의 행복을 여는 새 지평' 관심있게 읽었습니다. 1차 그랜드 오픈 과정과 그 이후 이야기들 재미있게 전해 들었습니다. 내년 2차 오픈도 성공적으로 완창되길 바랍니다. 참, 사무실 풍경 사진을 자세히 뜯어보다 '아는 얼굴'을 발견하는 숨은 재미까지... 멀리 계신 모습이지만 저는 쉽게 찾아 냈답니다. '김동조' 매니저님 잘 지내고 계시죠? 빨리 다시 뵙고 싶어요. 앞으로도 좋은 소식지 발행 부탁드립니다.

## 강남무선운용센터 코어망제어팀 신무준

현장에서 말없이 곳곳이 일하시는 조합원 소식에 다시 한 번 자부심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여러 조합원들의 생생한 소식을 소식지 "길"을 통해서 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 경영지원센터 업무지원팀 박보민

매번 소식지가 올때마다 챙겨보고 있습니다. 이번 소식지에서 다룬 세제개편 문제와 증도의 자연을 유심히 살펴 보았습니다. 매번 조합원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집행부에 감사드립니다.



# KTTU QUIZ

'아픈 마음을 헤아린다'는 의미와 '햇살이 아름다운 숲'이라는 두가지 의미를 지닌, KT 임직원들에게 열린공간을 제공하는 심리 상담소 명칭은? (힌트: 18페이지 참고)

정답 보내주실 곳 : kgb@kt.com(김근배 홍보국장)

※ 보내주실 때 반드시 **이름/소속/연락처/주소**를 함께 기재해 주셔야 상품권이 배송됩니다.

## ANSWER

정답과 함께 소식지 '길'을 읽고난 소감을 메일로 함께 보내주시면 선별하여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 다운플랜, 전국 웨딩협력사 안내

(주)다운플랜에서는 회원님에게 좀더 질 좋은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아래와 같이 웨딩협력사를 선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웨딩 협력사	대표 또는 실무자	연락처	주소
서울	루미에스튜디오	김석진	02-511-5491 010-8920-2017	강남구 논현동 246-3
부산	김수영웨딩	김수영	051-635-2030 010-8848-2375	진구 범천1동
울산	목화예식장	윤정미	052-260-5555	남구 달동 1252-1
창원	MJ웨딩	이재문	055-264-0066 010-7400-4007	의창구 명서동 206-3
대구	플로라웨딩	김정희	053-431-1101 010-7164-0007	중구 대봉동 41-4
포항	티파니 웨딩홀	이미란	054-283-0077	남구 대도동 169-3
광주	마이웨딩	김영학	062-225-3861	동구 남동168-6
대전	연수원컨벤션	김윤오	042-535-7788 010-3453-6292	괴정동 KT인재개발원
대전	웨딩그룹정일품	유병무	042-242-0077 010-5435-6370	중구 은행동 125-7
전주	마리한웨딩	김인덕	063-232-2661	완산구 중앙동 상가
춘천	결만사	배정삼	033-244-4058 010-4538-0873	효자2동 647-6
제주	웨딩그룹	박종삼	064-748-0080	노형동 2494-8

- 각 웨딩 협력사에 대한 상품 내용은 협력사 마다 다르며, (주)다운플랜 회원님에게 좀더 질 좋은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각 협력사 마다 특징점을 살려 계약되었습니다.
- 각 웨딩협력사별 상품 내용은 협력사로 직접 문의하시면 됩니다.
- 각 웨딩 협력사는 점차적으로 확대 보강할 예정이며, 다운플랜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다운 1호 또는 다운 1-13호 가입회원은 모두 사용가능하며, 다운2, 3호 가입회원은 나머지 금액을 100% 환불하여 드립니다.

문의  
신청

1577-1555  
www.daonplan.com

 다운플랜